

## 오정희의 「바람의 뉘」 다시 읽기\*

- 모티프를 중심으로 -

김 미 영\*\*

### 차례

1. 「바람의 뉘」에 대한 문제제기
2. '가출' 모티프와 존재 탐색의 서사
3. 삽입 모티프 <헌화가>와 애도의 서사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바람의 뉘」에 대한 재론이다. 이 글의 착안점이자 기존 연구와의 변별성은 모티프와 주인공 남편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있다.

「바람의 뉘」은 메인 모티프인 '가출'과 삽입 모티프인 <헌화가>, 이탈리아 영화 <길>로 구성되었다. '가출' 모티프는 이 작품의 성격을 존재 탐색의 서사로, 삽입 모티프인 <헌화가>와 <길>은 주인공 은수에게 바치는 '진혼의 노래'로서 애도 서사의 성격을 드러낸다.

주인공 은수의 가출 행위는 모두 11차례 드러난다. 결혼 전에 결행한 가출은 유년기와 소년기에 두 차례 있으며, 결혼 이후에 9차례의 가출이 나타난다. 은수의 인생에서 첫 가출은 전쟁 중 가족의 참사를 목도한 유년의 원체험이 발단이고, 소년기의 가출은 출생비밀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 이후에 시도한 가출은 자신의 존재성, 또는 근원을 찾기 위

한 무의식적인 반복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출이 그녀의 존재 탐색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녀가 결행한 마지막 가출에서 자신의 근원을 확인하였으나 이로 인해 남편, 자식과의 단절이 견고해졌기 때문이다.

삽입 모티프는 향가 <헌화가>와 영화 <길>을 주목할 수 있다. <헌화가>는 여주인공 은수의 서사에 삽입된 모티프로써 은수의 제의적 죽음에 대한 진혼의 노래가 된다. 반면, <길>은 남편 세중의 서사에 삽입된 모티프로써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내의 가출을 바라보는 남편의 내면 심리와 아내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지세중은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사고를 보여주는 인물로서, 은수와 대립적 관계에 있는 인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아내의 가출을 지켜보며 아내에 대한 연민을 수반한 심리적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지세중을 폭력적 남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는 은수가 자신의 가출 행위에 대하여 미처 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또한 전쟁의 비극적 자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은수의 가출 행위가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고, 아내의 이러한 상황이 세중의 소박한 꿈인 단란한 가정의 유지를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 핵심어 : 가출 모티프, 삽입 모티프, 원체험, 존재 탐색, 애도 서사, 진혼의 노래, 제의적 죽음, 연민, 전쟁

### 1. 「바람의 뉘」에 대한 문제제기

「바람의 뉘」은 1982년에 발표된 중편소설로서 과작의 작가인 오정희에게 상당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에 석 달간 연재하면서 '중편이나 장편 하나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과감히 시작'<sup>1)</sup>한 작품이라는 작가의 말이 심상하게 보이지 않는다. 단편이 아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5년도).

\*\*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부교수

년, 중편이나 장편을 기대했다는 말 속에는 서사성에 대한 관심이 내포되었을 것이라는 예상을 불러일으킨다. 즉 단편소설의 특성으로 언급되던 비의적이고 서정적인 문체를 벗어난 견고한 서사구조와 흥미 있는 스토리 전개를 의중에 두었을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점들을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 이 작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인 이유도 이런 점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작품에 대한 접근 방법은 크게 주제, 이미지와 모티프, 서사구조, 문체적 접근 등으로 드러난다.

흥미로운 것은 이미지, 모티프, 서사구조, 문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도 논의의 합의점은 ‘여성 정체성 찾기’로 수렴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여성과 대립되는 남편에 대한 분석도 대부분 가부장적 남성중심 사고에 경직되어 있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가출’ 모티프와 ‘이미지’, 서사구조 중에서 어떤 부분을 더 부각시키느냐로 차이를 드러냈다. 많은 논자들은 이 작품에 나타난 ‘가출’ 모티프에 관심을 두면서 중년 여성이 자신의 존재를 탐색하는 정체성 찾기의 과정으로 보았다.<sup>2)</sup> 때로는 반복적으로 가출을 시도하는 중년 여성의 ‘불안’<sup>3)</sup>에 초점을 둔 연구도 나타났다.

외출과 귀환의 서사구조에서 작품을 분석한 김치수의 연구, 문체적

접근으로 본 이상신의 연구<sup>4)</sup>를 주목할 수 있으며, 2000년대의 연구로는 ‘이미지’에 중점을 두면서 여성의 정체성 탐색을 분석한 정재림의 연구,<sup>5)</sup>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한 심재경의 연구<sup>6)</sup>도 관심을 끈다.

본고는 「바람의 뉘」에 대한 재론이다. 따라서 기존 논의와 변별되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소임을 메인 모티프인 ‘가출’의 의미와 삽입 모티프로서의 <현화가>, <길>의 기능을 주제와 연결시켜 보는 것, 남편의 재해석 등에서 찾으려 한다. 이 작품은 오정희 소설에서 서사성의 일반화와 그의 소설 고유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가출 모티프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전개되었지만 여전히 재고할 여지를 지니고 있다. 가출 모티프에서 은수와 남편의 ‘집’에 대한 애착을 살펴봄으로써 단란한 가정, 집의 안존을 지키지 못한 부부의 상황이 전쟁과 밀착된 관계를 좀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삽입 모티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진한 편이다. 삽입 모티프의 해석을 좀 더 치밀하게 한다면 이 작품의 의미해석을 더 풍요롭게 할 것으로 본다.

한편, 남편의 의미를 새로이 살펴보는 것도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남편 지세중은 대부분 남성중심의 사고를 피력한 인물로서, 주인공 은수와 대척점에 두었다. 초기 연구 중에는 아내 은수와 남편 세중의 관계를 평범한 중산층 부부의 관계로 보면서 은수의 가출을 중산층 여성의 일탈적 욕망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더 심하게는 가부장적 사고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은수와 대립시키고 있다. 그러나 과연, 남편의 의미를 페미니즘비평에서 흔히 도입하는 남녀 인물의 이분법적 구도로 해석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은수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는 인물, 또는 은수와 동일한 인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두 인물을 대립적 관계로 보기 어려운 부분

1) 우찬제 편,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516면.

2) 대표적인 연구자는 다음과 같다.

성민엽, 「존재의 심연에의 응시」, 오정희, 『바람의 뉘』, 문학과지성사, 1986.; 김치수, 「외출과 귀환의 변증법」, 우찬제 편,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오생근, 「허구적 삶과 비판적 인식」, 우찬제 편,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우찬제, 「텅 빈 충만, 그 여성적 뉘의 노래」, 우찬제 편,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이소연, 「오정희 소설 속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의 의미화 과정 연구: 「바람의 뉘」, 「파로호」, 「옛 우물」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0집, 2009.; 강숙아, 「「바람의 뉘」에 나타난 반복법 연구」, 『한국문예창작』 제9권, 2010.; 김세나, 「오정희 소설의 기억 서사 형식 연구: 「바람의 뉘」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9, 2014.

3) 엄미옥,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불안의 의미 연구: 「바람의 뉘」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문화』 제5집, 2009.

4) 이상신, 「오정희 「문체」의 문체」, 우찬제 편,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5) 정재림, 「오정희 소설의 이미지 기억 연구」, 『비교한국학』 14호, 2006.

6) 심진경, 「원초적 장면과 여성적 글쓰기의 기원: 오정희의 「바람의 뉘」 재론」, 『인문학논총』 제37집, 2015.

이 상당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두 인물은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지닌 채 서로에 대한 애뜻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이 은수의 존재 탐색 과정을 보여주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일치한다. 그런데 이러한 자아찾기를 철저히 혼자 힘으로만 해야 한다는 점을 기존 연구에서는 간과하고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존재 탐구를 해야 하는 여성 주체의 성장서사라면, 이때 남편이나 친정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그것을 ‘동정자’의 위치라고 보았다.

오정희의 많은 소설 중에서 유독 「바람의 뉘」에 대한 재독을 강조한 것은 이 작품이 오정희 소설의 변화를 보여주는 텍스트로서 서사성과 의미성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김병익은 『유년의 뜰』 이후에 나타난 오정희 소설의 변모를 일찍이 밝혀놓았다.<sup>7)</sup> 변모의 핵심은 오정희 소설에 역사적 사건들이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별사」와 「야회」 이전의 작품이 자폐적 특성을 지니는 개인의 내밀한 세계를 다루고 있다면 「별사」와 「야회」에는 이전 작품과 구별되는 ‘해방 직후 또는 4.19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배경화된 것이다. 사회·역사적 사건이 비록 미약하게나마 반영되었어도 이러한 변화들은 “오정희가 서정시의 세계로부터 소설의 세계로 옮겨 앉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직관과 추상의 세계로부터 역사와 현실의 세계로 시선을 돌리고 있음”<sup>8)</sup>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다음해에 발표한 「바람의 뉘」에 이르면 역사적 사건이 개인의 삶을 좌우하는 서사성과 그의 고유한 글쓰기 방식이 결합하여 작품에 대한 의미를 다층적으로 고찰하도록 하고 있다. 즉 그의 서정적 글쓰기와 유기적인 서사구조의 결합 안에서 드러난 이 작품의 의미 생성은 소설읽기의 향유적 쾌감을 배가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개인의 내밀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가운데 사회적 배경으로 설정한 6.25 전쟁의 비극성을 ‘원초적 기억’의 회복 과정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그의 소설세계에서 색다른 면모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참상을 리얼하게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의 소설쓰기에 빈번히 나타난 모티프와 색채 이미지 등이 서사성과 유기적 결합을 이룰 때 긴 여운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 2. ‘가출’ 모티프와 존재 탐색의 서사

중편소설 「바람의 뉘」은 겹겹의 모티프로 구성된 작품이다. 가장 큰 모티프는 ‘가출’이고, 이 가출의 반복이 10 여 차례 드러난 서사 안에는 다시 삽입 모티프들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의 초기에는 여주인공 은수의 반복되는 가출에 대하여 중산층 여성의 일탈 욕망으로 분석하기도 했으나 연구가 축적될수록 가출의 의미를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자기 정체성 찾기’로 자리를 굳혔으며, 최근에는 전쟁체험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이라는 관점<sup>9)</sup>도 발표되었다. 본고에서도 ‘자기 탐색 서사’의 논의에 공감하지만 ‘가출’ 모티프에 대한 의미는 여전히 더 살펴볼 요소가 있다고 본다. 여주인공의 가출 행위는 작가 오정희의 개인적 체험과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오정희의 청소년시기의 ‘가출’ 체험<sup>10)</sup>은 이 작품의 서사 전개에 리얼리티를 부여하고 있다. 즉 가출이 중년여성의 일탈적 행위이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둔 여성 자아에 대한 의식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행위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바람의 뉘」은 표면적으로 보면 중산층 아내가 느끼는 삶의 권태와 허무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그 심층에는 6.25 전쟁의 참상이 기저로 흐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사회적 배경이 중요해진다. 서사 전개의 주된 시간적 배경은 80년대 초반이지만, 서사전개의 또 다른 시간적 배경은 30 여년 전 6.25전쟁으로 소급되어 서사를 추동시키

7) 김병익, 「세계에의 비극적인 비전」, 『제3세대 한국문학 오정희』, 1985, 삼성출판, 428-429면.

8) 위의 글, 같은 곳.

9) 심진경, 「원초적 장면과 여성적 글쓰기의 기원: 오정희의 「바람의 뉘」 재론」, 『인문학논총』, 2014, 379면.

10) 오정희, 「나의 문학과 생활」, 『내 마음의 무늬』, 황금부엉이, 2006.

고 있다. 은행원 남편 지세중과 미술을 전공한 아내 은수의 평범하고도 안온한 결혼생활이 아내의 잦은 가출로 인해 파탄에 이르는 동안 전쟁의 트라우마가 드러나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기존에 이미 밝히고 있는 ‘가출’의 의미에 대하여 본고에서 더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주인공의 가출을 결혼이후에 나타난 행위에서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첫’ 가출로 볼 수 있는 유년기의 ‘집 떠나기’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두번째로는 결혼 이후에 나타난 ‘가출’에서 아내 은수의 내면심리는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그동안 미흡하게 보아온 남편 지세중의 태도와 내면심리 분석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초점은 은수와 세중의 무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작품에서 은수의 가출은 모두 11회로 나타난다. 기존 연구는 유소년기에 시도한 2 차례의 ‘집 떠남’을 굳이 가출이라는 명명으로 해석하지 않았기에 가출 횟수 산정에 다소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선행 연구를 보면, 유년기의 가출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결혼 이후의 가출에만 집중한 면이 있다. 그러나 유년기의 가출은 존재 탐색의 근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유년기 은수가 자신의 집을 떠난 것 자체를 하나의 ‘가출’로 볼 경우, 은수 내면에는 일찍부터 ‘집’에 대한 동경,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은수는 유년기 때 이미 ‘집’을 떠난 행위를 하였으나, 이 행위 자체를 아예 망각하고 있다. 이러한 망각은 억압기제에 의한 은폐라고 할 수 있다.

5살 유년기에 목도한 육친의 죽음은 세계의 파괴임과 동시에 자신의 생존이 위협을 당하는 공포스러운 사건이다. 이러한 현장에서 본능적으로 벗어난 가출은 전쟁의 참상에 의한 무의식적 행위가 된다. 공포의 장소를 떠난 ‘출분’인 것이다. 은수의 인생에서 첫 ‘가출’이 되는 이 유년기의 ‘가출’은 이후, 자신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정서적 불안으로 이어지며 끊임없이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 가야한다는 강박증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는 ‘집’에 대한 그리움이

떠나지를 않는 것이다.

그녀가 보게 된 육친의 죽음 현장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 억압된 원체험으로 남아서 그녀의 끊임없는 ‘가출’을 이끄는 모티프가 된 것이다. 유년의 기억으로 유일하게 떠오른 기억 속에는 장소 이미지가 강렬하게 나타난다.

최초의 그녀의 기억은 이층으로 오르는 어둡신하고 가파른 나무 계단과 하얗게 햇빛이 쏟아지는 마당에 나뉘고 있던 두 짝의 작은 검정 고무신이었다.<sup>11)</sup>

은수 스스로 ‘최초의 기억’이라 부른 이 영상에는 ‘하얀 햇빛이 있는 마당’과 ‘나무계단’, 그리고 햇빛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검정 고무신이 기억의 메타포로 작용한다. ‘기억’에 대한 연구를 집적해 온 알라이다 아스만은 기억 메타포는 몸의 문자, 사진, 그리고 장소감 등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는데, 은수의 경우 장소감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이-푸 투안이 말하는 장소감<sup>12)</sup>이 평화로운, 안식처로서의 공간이라면 아스만이 말하는 장소감은 트라우마를 지닌 장소감으로서의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트라우마의 장소는 과거의 어떤 사건이 잠재력을 유지하여 사라지지도 않고 또한 시간적 거리를 만들지도 않는다는<sup>13)</sup> 데에 그 특성을 드러낸다. 은수의 경우도 ‘하얀 햇빛이 쏟아진 마당’과 ‘나무계단’, ‘마당에 있는 검정 고무신’은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드디어 의식화되면서 30 여년의 시간적 거리는 가볍게 무시한 채 현재의 삶 속으로 끼어들어 삶을 교란시키고 있다.

전쟁에서 트라우마를 입게 되면 심리적 장애를 지니기 마련이다. 이는 기억상실증, 불면증, 의욕상실증, 우울증, 시각장애, 청각장애 같은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는데, 이 신체적인 장애는 억압된 감정 때문에 생

11) 오정희, 「바람의 뉘」, 『바람의 뉘』, 문학과지성사, 1986, 125면. 이하의 인용문은 페이지수만 표기한다.

12)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회·심승희 역, 대운, 1999.

13)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변학수·채연숙 역, 그린비, 2012, 454면.

긴 것이다.<sup>14)</sup> 은수의 경우는 5세 당시의 일정 기간에 대한 기억상실증을 지니고 있다. 달리 망각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망각은 심리적 검열에 의한 억압 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망각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기억해내기를 거부하는 의도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서 목적성을 지닌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부<sup>15)</sup>인 것이다. 그러나 그 기억이 주체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 한다. 은수의 가출은 망각된 기억의 복원을 위해서 그 은폐된 것과 대면해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행위이다.

은수의 인생에서 두 번째 가출은 국민학교 5학년 때 일어난다. 자신의 출생신분이 ‘업동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날 시도하였다. 그녀는 어머니(양모)의 살뜰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느낀 ‘결핍’의 정체를 간파한 것이다. 두 번째의 가출은 ‘자신의 집’으로 향하기 위한 행동이다. 첫 번째 가출이 자신의 훼손된 집에서 아버지 친구의 집으로 피신한 출분이라면, 두 번째는 부모가 있는 ‘집’으로 향하는 마음의 반응인 것이다. 그녀의 집 떠남의 행위는 승선으로 이어지고, 끝내 떠나지 못한 그녀는 인천 항구의 정박한 배에서 어머니에게 발견된다.

은수의 가출을 보면 유년기의 가출, 청소년기와 대학생 시기의 가출 행위 부재 상황, 그리고 결혼 이후 다시 시작된다. 이와 같은 그녀의 가출은 그녀의 무의식과 닿아 있다. ‘가출’은 은수의 인생에서 삶의 뿌리가 훼손되는 절대적이고도 절박한 상황일 때 드러나는 행위로서, 그것은 삶의 뿌리가 되는 ‘집’, ‘가족’의 동경으로 이어진다.

언제 어디서나 은수를 지배하던, 나의 집이 아니라는 느낌, 임시로 머무는 듯한 지긋지긋한 헤매임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했다. 결혼은 < 옮겨심음 > 이 아닌 파종, 새로운 뿌리내림이어야 했다.(127면)

그에게 결혼은 자신만의 ‘온전한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그러나 결혼 이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새로운 ‘집’을 유지하는 것이 허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른다. 결혼은 ‘새로운 뿌리내림’이어야 하는데, 자신의 근원을 어둠에 묻어 두고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를 출산한 이후 정체성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이다. 결혼 이후 잦아진 ‘가출’은 그녀의 사고에서 떠나지 않는 ‘원체험적 기억’과 결부되어 존재 탐색의 과정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평온한 결혼 생활이 진행될수록 그녀를 괴롭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탐색은 갈증처럼 남아 있다. 집이란 것이 이식(移植)이 아니라 ‘파종(播種)’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존재의 근원에 집착하는 그녀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의 근원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녀에게 영원한 안정은 없으며 고아의식에 시달리는 ‘이식’의 상태, 부표의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 질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반복적 가출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간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바슐라르는 집에 대한 인간의 정서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그의 견해는 은수와 남편이 ‘집’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바슐라르에 의하면, 집이란 세계 안의 우리들의 구석으로서, 우리들의 최초의 세계이다.<sup>16)</sup> ‘우리들의 구석’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들만의 몽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은수의 집에 대한 몽상, 또는 동경을 지닌 모습이 바슐라르와 상통하고 있다.

난 사는 집이 곧 자기 체질이 된다고 생각하는 축이에요. 요즘 집들은 재미가 없어요. 아파트식이라 편하다고는 해도 손바닥처럼 뻥해서 싫어요. 방을 많이 만들어요. 개미 굴 같겠지만. 화가 나가거나 뭔가 마음에 차지 않을 때 들어가 숨어 있을 수 있는,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 장소가 꼭 한 군데는 있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줘야 해요. 그렇다고 반드시 집이 커야 할 필요는 없지요. 대신 마당은 넓어야 해요. 마당에 둥근 탁자를 놓고 날이 좋으면 밖에서 식사를

14) 위의 책, 381면.

15) S. 프로이트, 『어린 시절의 기억과 은폐 기억들』,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이한우 역, 열린책들, 1997, 69-79면, 참조.

16)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광광수 역, 민음사, 1990, 115면.

하고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겠어요. 나무는 되도록 유실수로 심어요. 그 래야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232면)

인용문은 남편 지세중이 더 이상 아내와의 결혼 유지가 어렵다는 판 단 하에 적금을 해약하면서 아내의 말을 떠올렸던 부분이다. 그와 은수 는 함께 미래의 집에 대하여 꿈꾸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적금을 착실 히 부었던 것이다. 은수와 세중에게 집은 ‘사상과 추억과 꿈을 한데 통 합하는 큰 힘’<sup>17)</sup>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 력한 부부이다. 그러나 은수의 가출로 이 부부는 자신들의 집을 짓고, 지키는 일을 지속하기가 힘들어졌다.

결혼 이후의 가출은 모두 9차례 드러난다. 신혼기에 세 번, 출산을 한 이후 아이의 첫 돌 무렵에 한 번, 아이가 5살이 된 같은 해에 세 번 이루어진다. 그리고 별거를 유발한 가출과 이혼이 잠정화된 가출 등이 더 추가됨으로써 모두 9번이 된다.

결혼 이후의 가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가출에 대한 은수와 세중의 반응이 중요하다. 세중의 심리적 반응은 그의 인물 특성을 드러 내기 때문이다.

가출 회차	나이 (시기)	은수 및 남편의 반응
신 혼 기	1 신혼 후 6 개월/겨 울. 28세	배신감과 아내에 대한 분노(194면) 나른한 행복감(198면) 은수- '그냥'
	2 1회 가출 후 다음 해 봄	충격보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몸을 떨었다.(198면) 형체를 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었다고 느낌.(199면)
	3 2회 가출 같은 해 여름. 임신	꿈이라든가, 소망·신뢰들을 잠식해 가는 것(200면)
출	4 승일이 첫	'년 짐승만도 못해'(200면)

17) 위의 책, 119면.

산 직 후	나이	은수-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사나, 사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201면)
결 혼 6 년 제	5-6 가출 언급만 있고, 구체화되지 않음. 가출 방법이 점차 악랄해졌다 고 함. 34세	
	7 서사의 발 단부분. 34 세. 한 해 에 세 번째 가출에 해 당함.	오래 서성이던 담 밖의 발 소리를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나는 오히려 <b>땀이 빠졌다.</b> (182면) 울화 (182면) / <b>신경질적</b> (183면) 은수-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노라'(182면)
	8 34세. 봄날 윤간을 당 함 별거 시작	<b>아득한 절망감</b> (225면) <b>아내의 기척</b> 에 날카롭게 귀를 세우고 불을 끈 마루 에서 술을 마시었다.(226면) 배반감과 허기증과도 같은 허전함(227) 분노는 이미 차갑게 굳어져 있었다.(227면) 아내의 '집'에 대한 생각 떠올림.(232면) 허전하고 불행하고 억울하다는 심사(233면) <b>바닥모를 깊은 절망과 비애</b> (239면) 아내의 구두. <b>연민</b> 때문에 물러서서는 안된다.(244면) 아내에 대한 <b>가해 의식</b> (245면) 나 자신이 <b>졸렬</b> 하고 한심 (245면) 몸의 한 부분이 떨어져나가는 듯한 <b>아픔</b> 과 절박한 <b>안타까움</b> 으로 가슴이 에어저 숨도 쉴 수가 없었다.(247면)
	9 34세. 여름	은수-장남에 대한 생각 (249면) 기존의 가출에 대한 생각- 잊어버린 것과 만날 것 같은 기대와 안타까움. 자신의 행적에 대한 부끄러움 과 두려움(251면) 승일리와 인수동 방문-부질없는 안간힘(263면) 무서운 그리움 (265면) (굵은 글씨-필자)

8회째의 가출(엄밀하게는 ‘외출’임)은 그녀의 결혼 생활에 파멸을 초래한다. 봄 날의 산 속에서 낫선 사내들에게 윤간을 당한 날이다. 이 가출은 삽입모티프 부분에서 상술하겠다.

마지막 가출은 지금까지 진행된 가출과 성격이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가출은 첫 번째 신혼여행지 이외에는 뚜렷한 목적 없이 ‘그냥’, ‘답답해서’ 시도한 것으로서 가출 장소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날의 가출은 유년기에 살았던 고향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제시된다. 최초의 기억에 해당하는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유년기의 동네인 M시 인수동은 지금까지 ‘여기저기’ 다녔다는 그녀의 가출 이야기와 달리 구체적, 실존적 장소이다. 또한 아들과의 동행은 어떤 의미인가. 이는 자신의 존재 탐색에 자신의 분신과 같은 아들을 대동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어머니나 남편이 아닌, 아들의 존재가 의미를 지닌다. 은수는 자신의 삶을 이해해줄 존재로 아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은수의 가출에 대한 남편 지세중의 심리적 반응을 정밀하게 살펴보면 남편의 의미를 새로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내의 가출에 대한 남편 지세중의 반응은 그를 단순히 가부장적 남성의 상징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많은 유보 사항들을 가지고 있다. 아내에 대한 그의 태도는 매우 동정적이고, 사랑하는 남편의 태도로 보인다. 신혼 시절부터 드러난 아내의 가출에 대하여 보인 남편 지세중의 반응은 분노, 수치심, 배반감, 불안, 절망감 등이다. 이러한 심리는 가부장적 사고에 경직되어 있는 남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반응이라고 본다. 이런 일차적 정서가 가라앉으면 그는 은수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녀의 불안심리를 감지하여 그녀에게 동정과 연민을 드러낸다. 따라서 그가 아내를 차갑게 대하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는 결과적 행위만을 가지고 그를 가부장적 사고를 지닌 ‘남성적 폭력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본다.

남편 지세중은 은수 못지 않게 감상적이고, 감각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아내의 불안을 감지하면서도 그녀를 적극적으로 치유하려 하지 않은 남편이라는 점에서는 면책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내의 가출에 근원적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녀의 치유를 적극적으

로 강구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관찰하고, 자신의 내적 고민을 토로하면서 그녀의 가출을 은밀히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남편의 형상화는 오정희의 서사적 고려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존재 탐사 행위는 철저히 고독한 ‘자신’만의 수행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남편의 조력은 물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아내 가출의 근원적 원인이 전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아내의 비극적 정황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남편의 인생과 모든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 작품은 전쟁의 후유증을 내포한 작품으로 읽힌다.

### 3. 삽입 모티프 <헌화가>와 애도의 서사

오정희의 소설은 문장 하나하나가 비의적인 시적 문체<sup>18)</sup>라는 지적과 구성에 있어서는 에피소드, 반복 모티프 등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구사한 ‘짜맞추기’<sup>19)</sup>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주목할 수 있다. 오정희의 소설에 드러난 그리움, 갈망, 동경 등이 두드러지는 것은 그녀가 세심한 짜맞추기에 의하여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sup>20)</sup>이다.

그동안 이 작품에 대한 이미지와 반복구조의 연구 성과에 비하면 삽입 모티프 <헌화가>와 영화 <길>에 대한 분석은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이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이 작품의 의미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은수와 남편 세중이 결정적으로 별거를 결정하는 계기는 은수가 윤간을 당하게 된 외출 때문이다. 이날, 은수는 친정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18) 박혜경, 「불모의 삶을 감싸안은 비의적 문체의 힘: 『바람의 뉘』 이후의 오정희의 소설들」, 『작가세계』 7, 1995, 115면.

19) 최윤정, 「부재(不在)의 정치성(精緻性)」, 『작가세계』 7, 1995, 74면; 명형대, 「조각그림 맞추기와 소설읽기: 오정희의 「바람의 뉘」 연구」, 『배달말』 27, 2000.

20) 최윤정, 「부재(不在)의 정치성(精緻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변주」, 『작가세계』 7, 1995, 74면.

외출을 준비하면서 ‘봄날’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평소보다 ‘화사한’ 옷차림에 신경쓰며, ‘보랏빛’ 투피스를 입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정류장에서 낯선 사내의 집요한 눈길을 의식하고 불편해 한다. 집요한 사내의 응시를 피하기 위해 그녀는 생각지도 않았던 프리지어 한 다발을 샀다. 은수는 꽃을 보며 꽃의 용도가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생각한다.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똑같이 요긴하게 쓰이는 것은 꽃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례식에도, 장례식에도 꽃으로 치장하지 않는가.(129면)

은수는 꽃은 기쁜 일과 슬픈 일에 모두 사용되기에 혼례식과 장례식에서 동시에 사용한다는 상념에 빠진다. 버스에 탄 이후에는 먼 산의 붉은 진달래에 또 마음을 뺏긴다. 먼 산 바위 벼랑의 붉은 진달래를 보며 급기야 향가 ‘헌화가’를 떠올린다.

은수가 떠올린 헌화가는 이 작품에서 현대적 변용으로 차용되었다. 즉 그녀에게 닥칠 사건에 대한 복선이라 할 수 있다. 『삼국유사』 권2 기이편(奇異編)에 수록된 수로부인 이야기는 2편의 배경 설화를 거느린다. 하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옹이 수로부인에게 천길 벼랑 위에 만발한 척촉화(躑躅花, 진달래꽃)를 꺾어 노래와 함께 바치는 이야기이고, 또 다른 설화는 수로부인이 해룡에게 납치되었다가 <해가(海歌)>에 의하여 구출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설화를 바탕으로 한 <헌화가>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축적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은수의 삶과 유사성을 지닌 ‘제의성’<sup>21)</sup>에 대한 논의가 눈길을 끌었다.

수로부인과 은수는 동일 선상에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여기현의 글에 의하면, 수로부인은 제의에 바쳐진 희생제물이다. 노옹이 제의의 공간에 ‘끌고 나오는 암소’는 제의에 바쳐지는 제물이지만 나라에 발생한 위기(가뭄)가 매우 심각할 때는 암소로서의 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 제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물로 대체해야

21) 여기현, 「<헌화가>의 제의성」, 김학성·권두환 편, 『新編 古典詩歌論』, 새문사, 2003.

하는데, 그 대체물이 바로 수로부인이라는 것이다. 제물의 효력으로 볼 때, 암소보다 ‘수로부인’이 생생력을 소유했다고 본 것이다. 이때 생생력의 근거를 꽃에 두었다. 그리고 진달래꽃의 강렬한 붉음이 생생력의 고조를 보여준 모습이며, 이 꽃의 헌화를 받은 수로부인은 생생력을 촉발시키는 제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수로부인(水路夫人)’ 이야기의 특성이 은수의 외출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현대적 변용을 발견할 수 있다. 은수를 깊은 산으로 이끈 것이 붉은 진달래꽃이라는 점, 은수의 성장한 차림새가 ‘화사한 보랏빛’<sup>22)</sup>이라는 점, 옷에는 진달래꽃을 꽃고, 자루에도 진달래꽃을 담은 산사내들의 등장과 운간 등은 <헌화가>의 배경설화를 현대적으로 차용한 흔적이라 하겠다.

버스를 타기 전에 은수가 산 꽃다발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왜 꽃을 바치는가? 자신의 죽음, 제의적 죽음을 애도하기 위함이다. 산사나이들의 입술에 묻은 붉은 진달래물빛도 모두 죽음과 관련된다. 사내들의 자루에 하나 가득 있는 ‘진달래꽃’ 등 이 날의 외출은 운동 붉은빛에 넣을 잃은 은수의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현은 오정희의 소설에 나타난 ‘붉은색’의 의미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불의 강」에 대한 평론에서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붉은색’은 죽음과 관련된다고 하였다.<sup>23)</sup> 「바람의 녀」에서도 붉은색 이미지는 강렬하게 드러나며, 죽음과 결부되어 있다.

22) 보랏빛 투피스의 부각은 남편 세종의 눈에도 강하게 남아 있다. 그는 은수가 입고 있는 보랏빛 투피스를 보며 상황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녀를 외면한다. 은수는 남편 세종의 은행을 찾아갈 때도 이 원피스를 입고 있다. 자신이 운간을 당하던 날 입었던 옷이라면, 정상적인 여성의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입지 않을 옷일 텐데, 그녀는 이것을 입고 간다. 무엇보다 보랏빛 투피스의 그녀를 부각시킨 것은 그녀가 앉아 있는 장소이다. 그녀는 일반 보다 보다 높은 분수대에 앉아 있다. 분수대에 앉은 그녀는 한 송이 보랏빛 꽃이 될 수 있다. 남편은 이런 아내를 보고, 이상한 차림과 행동 때문에 외면해 버린다.

23) 김현, 「살의의 섬뜩한 아름다움」 초판해설, 오정희,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2004.



잠은 눈에도 햇살은 누부시고 바람의 진달래는 선연히 붉었다. 그리고 햇빛 아래 날부러진 자신의 모습이, 사지를 편에 꽂혀, 아직 죽지 않은 의식으로 퍼들대는 해부용의 개구리처럼 떠올랐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왜 불현 듯 기억의 맨 밑바닥에서 물에 잠긴 사금파리 조각처럼 빛나는 최초의 기억, 튀어오를 듯 강한 햇빛과 나뭇갈래진 두 짝의 고무신이 떠오르는가.(135면)

윤간 이후 그녀에게 ‘불현 듯’ 떠오른 생각은 수많은 생각 중에서도 ‘최초의 기억’이다. 이는 자신의 참혹한 윤간 사건과 최초의 기억 사이에 그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재림과 심진경의 연구<sup>24)</sup>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다. 즉 유년 시절 자신의 집에 들이닥친 낯선 사내들과 산에서 만난 사내들의 유사성, 이미지 등이 남성성의 폭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필자 또한 이들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현화가>의 현대적 변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보았다. 즉 낯선 사내들을 노옹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진달래꽃을 지니고 있는 점이 강하게 드러난다. 진달래 꽃을 옷에 꽂아 두었거나 자루에 넣었거나 입에 물고 있는 인물들로서 ‘꽃을 바치는’ 노옹의 이미지를 변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여기현의 글을 따를 경우, 노옹이 결국 암소 대신 수로부인을 제물로 바쳤듯, 이들은 은수를 윤간함으로써 은수의 상징적 죽음을 진행한다. 그런데 여기서 은수는 과연 여성으로서 견디기 힘든 ‘윤간’의 희생자 의미만을 띠는지 재고해야 할 것이다. 깊고 고요한 산 속에서 대낮에 치러진 그녀의 윤간 사건은 수로부인에 얽혀 있는 두 가지 배경 설화, 즉 노옹의 현화 부분과 해룡에게 납치되는 이야기를 고려할 때 단순히 ‘죽음’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은수의 윤간은 혹독한 제의식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 제의식은 희생제물로 끝나는 제의식이 아니라 통과의례에서 드러나는 제의적 입사<sup>25)</sup>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현화가>의 현대적 변용

이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윤간은 그녀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제의적 상황이기도 하다. 그녀가 버스에 오르기 전에 구입한 한 다발의 프리시아 꽃은 그녀의 제의식에 바쳐진 꽃으로 볼 수 있다. 이 삽입 모티프에 의해 이 작품은 유년기의 원초적 기억 때문에 참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은수의 삶을 마치는 애도의 서사이자 유년기의 트라우마를 위로하는 진혼의 노래<sup>26)</sup>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삽입 모티프는 이탈리아 영화 <길>이다. <현화가>의 모티프가 은수의 입장에서 구성된 것이라면, 이 삽입 모티프는 남편 세종의 입장에서 구성된 것이다. 이 모티프에서 은수에 대한 남편의 연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부부에게 일어날 이별을 암시하고 있다. 남편 지세중은 여주인공 켈소미나를 아내 은수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 영화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여주려 한 걸까. 인생의 페이도스를 보여주려 한 걸까.

짧은 머리칼, 놀란 듯, 겁에 질린 듯 커다랗게 뜬 눈. 오 켈소미나, 슬픈 천사여. 오 켈소미나, 어디로 갔나.(굵은 글씨-인용자 237면)

은수의 8회째 가출(외출) 때 세종은 그녀를 집에 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밖에서 서성이는 아내의 발소리에 가슴 졸이고 술로 감정을 억제

가 은수에게는 거의 탈색되었다는 점, 그녀가 그들의 구체적인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 채, 단지 「모자와 윗주머니에 꽂혔던 진달래 꽃가지, 꽃물 들어 붉고 축축한 입술만을 기억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사내들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사내들의 이미지는 육체적으로 그녀를 범한 포악한 자들이기보다는 여성이 지니고 있는 아버지-신적 이미지로서의 아니무스의 현현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들은 통과의례에서 제의적 입사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initiator)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김경수, 「여성적 광기와 그 심리적 원천: 오정희 초기소설의 재해석」, 『작가세계』 7, 1995, 109면.)

26) 오정희는 주인공 은수에게 보내는 편지글에서 이 작품에 대한 내밀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4) 심진경, 앞의 글, 면수; 정재림, 「기억의 회복과 여성 정체성: 오정희 「유년의 뜰」 과 「바람의 뉘」 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1, 2005.

25) 윤간을 한 사내들에 대한 김경수의 분석도 눈길을 끈다. 그는 윤간의 의미

한다. 술에 취하지 않으면 귀가하기 어려운 그의 생활상이 나타나며, 술에 취한 그는 아들 승일에게 줄 선물 꾸러미의 일부인 나팔을 보며 영화 '길'의 주인공을 떠올린다. 영화의 여주인공은 은수의 모습과 유사하다. 9회 가출에서 돌아온 은수의 모습은 '유행과는 무관하게 변함없이 짧게 깎은 머리 아래 목덜미는 이상하게 굽고 주름이 잡혀 있었다.(중략) 불건강하고, 기이한'(184면) 모습이다. 그가 연애시절 은수에게 호감을 가진 것은 선량한 모습 때문이다. '살결이 맑고 눈이 커서 선량해'(186면) 보이는 모습은 영화 <길>의 젤소미나와 겹쳐진다.<sup>27)</sup>

이러한 영화 모티프의 의미는 무엇인가. 젤소미나가 죽은 뒤에야 그녀의 존재를 인식한 잠파노와 같이 아내 은수를 집 밖으로 내몬 남편의 심리적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은수와 남편 세중은 모두 '집'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런데 아내의 가출벽으로 인해 소중한 꿈들을 접어야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결국은 포기해야 하는 아픔을 지닌다.

남편 지세중은 아내가 평안하게 지내고 있을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다. 그 또한 아내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체험한 세대일 텐데 이 작품에서 남편 세중의 전쟁 체험은 드러나지 않는다. 남편 세중의 전쟁 체험까지 다루지 않아도 충분히 전쟁의 참상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내의 전쟁 체험이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정체성 탐색으로 이어지는 동안 남편 또한 그 상처의 자장에서 온전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은수는 작품에 나타난 마지막 가출 다음날, 세중이 승일을 데려간 후, 어머니에게 묻는다. '그게 무엇인가요. 내가 누군가요. 어디서부터

27) <길>은 페데리코 펠리니의 명성을 국제적인 것으로 만든 초기 대표작의 하나이다. 떠돌이 광대 잠파노와 백치 소녀 젤소미나, 줄광대 일 마토 사이의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 바로 사랑을 통한 구원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한다. 젤소미나(줄리에타 마시나)는 잠파노가 묘기를 부릴 때 북을 치고 트럼펫을 부는 조수 역할을 하지만, 내면으로는 우악스런 잠파노가 성욕을 배설하는 소유물이다. 이 작품은 하층계급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지만, 가난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내부와 운명과 시간 사이의 비극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안병섭 외, 『세계 영화 100』, 한겨레문화사, 1995, 112-114면.

왔나요? 아무리 혼자 찾아 보려해도 안돼요.'(270면) 지금까지 은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혼자' 찾아보려 하였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어머니나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 찾으려 한 것이다. 존재의 탐색이 고독한 여정인 것은 알 수 있으나 은수의 행위를 보면 비극적 색채가 매우 강하다.

“너를 맡아 기르며 내가 그날 집에서 있었던 일을 비롯해서 네 부모, 늘 붙어 있던 쌍둥이 짝, 집의 기억을 완전히 잊은 것을 나는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온전히 내 자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 탓만은 아니었다. 그 끔찍한 장면을 보았다는 업(業)을 지니고 평생을 어찌 편안히 살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181면.)

세중과 어머니는 은수의 가출에 대하여 동정자, 연민자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을 동정하고 이해하려 하지만 치유로까지 이끌기에는 실천력이 미약한 인물이었다. 남편 세중의 서사는 아내의 가출과 강박적인 '흡연' 행위를 바라보는 남편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아내의 가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상한 남편이라기보다 그의 행복한 가정이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는 모습에서 삶의 절망감을 느끼는 소시민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남편의 서사에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침투하고 있는 전쟁의 상처를 알 수 있다.

어머니 또한 딸의 가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나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행위에 대하여 '업'이란 말을 함으로써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전쟁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정희는 “전쟁의 후유증과 잔재는 우리의 일상사와 무의식에 깊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전쟁의 망령들이 아직 살아 우리의 의식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때때로 집단무의식과 광기로 히스테리를 일으킨다.”<sup>28)</sup>고 하였다. 전쟁에 대한 작가의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역사적 상황에 대하여 자폐적 태도를 보였던 그의 작품이 세계를 수용하는 태도로 변모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28) 오정희, 「내 안에 드리운 전쟁의 그림자」, 『내 마음의 무늬』, 황금부엉이, 2006, 194면.

#### 4. 맺음말

『유년의 뜰』 이후부터 나타난 오정희 소설의 변화는 그의 소설을 ‘전쟁 체험’ 서사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와 함께 이 작품에 반영된 전쟁의 배경은 오정희 고유의 전쟁체험 서사를 고찰하도록 이끈다. 「바람의 뉘」은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의 선상에서 6.25 전쟁이 여성 주체의 정체성 확립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가 유소년기의 시각에서 여성 주체의 존재성을 살펴본 것이라면 이 작품은 유년의 원체험이 성인의 삶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론적 심연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전쟁을 염두에 둔 「바람의 뉘」에 대한 재론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와의 변별성을 메인 모티프와 삽입 모티프의 의미, 남편에 대한 의미를 6.25 전쟁의 관련성에서 보고자 하였다.

「바람의 뉘」은 메인 모티프인 ‘가출’과 삽입 모티프인 <헌화가>, 영화 <길>로 구성되었다. ‘가출’ 모티프는 이 작품의 성격을 존재 탐색의 서사로, 삽입 모티프인 <헌화가>와 <길>은 주인공 은수에게 바치는 ‘진혼의 노래’로서 애도 서사의 성격을 드러낸다.

이 작품에서 은수의 반복적인 가출 행위는 모두 11차례 드러났다. 결혼 전에 결행한 가출은 유년기와 소년기에 두 차례 있으며, 결혼 이후에 9차례의 가출이 나타난다. 은수의 인생에서 첫 가출은 전쟁 중 가족의 참사를 목도한 유년의 원체험이 발단이고, 소년기의 가출은 출생비밀이 원인이다.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시도된 가출은 자신의 존재성, 또는 근원을 찾기 위한 비극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반복된 가출이 그녀의 존재 탐색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마지막 가출로 그녀는 자신의 근원을 확인하긴 했으나 이로 인해 남편과 자식과의 단절은 더욱 견고해졌다.

삽입모티프 <헌화가>는 오정희 소설의 ‘붉은색’ 이미지가 죽음과 연

동되어 있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주었다. 이 모티프는 <헌화가>의 현대적 변용으로서 은수의 제의적 죽음에 대한 진혼의 노래가 된다. 반면, 영화 <길>은 남편 세중의 서사에 삽입된 모티프로써 그의 아내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남편 지세중은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사고를 보여주는 인물로서, 주인공 은수와 대립적 관계에 있는 인물로 논의되었다. 즉 아내 은수의 가출마다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즉 상처받지 않으려는 개인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신혼시절부터 진행된 아내의 가출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에는 은수에 대한 사랑, 연민을 수반한 심리적 반응이 드러나고 있다. 그를 폭력적 남성중심의 상징적 인물로 보는 것을 불편하게 한다. 그는 은수가 자신의 가출 행위에 대하여 미처 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대신 표현해주는 보완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또한 아내의 가출로 피해자가 된, 즉 전쟁의 비극적 자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로 보는 게 온당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오정희,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1977.  
 ———,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1981.  
 ———, 『바람의 녀』, 문학과지성사, 1986.  
 ———, 『불꽃놀이』, 문학과지성사, 1995.  
 ———, 『내 마음의 무늬』, 황금부엉이, 2007.
2. 단행본
- 김학성 외, 『신편 고전시가론』, 새문사, 2002.  
 안병섭 외 지음, 『세계 영화 100』, 한겨레문화사, 1996.  
 우찬제,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최문규 외,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3.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변학수·채연숙 역, 그린비, 2012.  
 지그문트 프로이트, 「어린 시절의 기억과 은폐 기억들」,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이한우 역, 열린책들, 1997.  
 빌헬름 딜타이, 『문학과 체험』, 김병욱 외 역, 1991.
3. 논문
- 강숙아, 「『바람의 녀』에 나타난 반복법 연구」, 『한국문예창작』 제9권, 2010  
 김경수, 「여성 성장소설의 제의적 국면」, 김경수 외, 『페미니즘과 문학 비평』, 고려원, 1994  
 ———, 「여성적 광기와 그 심리적 원천: 오정희 초기소설의 재해석」, 『작가세계』 7, 1995, 109면.  
 김병익, 「세계에의 비극적인 비전」, 『제3세대 한국문학 오정희』, 1985, 삼성출판,  
 김세나, 「오정희 소설의 기억 서사 형식 연구: 『바람의 녀』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9, 2014  
 김치수, 「외출과 귀환의 변증법」, 우찬제 편,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명형대, 「조각그림 맞추기와 소설읽기: 오정희의 『바람의 녀』 연구」, 『배달말』 27, 2000  
 박혜경, 「불모의 삶을 감싸안은 비의적 문체의 힘: 『바람의 녀』 이후의 오정희의 소설들」, 『작가세계』 7, 1995  
 성민엽, 「존재의 심연에의 응시」, 오정희, 『바람의 녀』, 문학과지성사, 1986  
 심진경, 「원초적 장면과 여성적 글쓰기의 기원: 오정희의 『바람의 녀』 재론」, 『인문학논총』, 2014  
 오생근, 「허구적 삶과 비판적 인식」, 우찬제 편,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엄미옥,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불안의 의미 연구: 『바람의 녀』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문화』 제5집, 2009  
 이상신, 「오정희 『문체』의 문체」, 우찬제 편,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이소연, 「오정희 소설 속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의 의미화 과정 연구: 『바람의 녀』, 『파로호』, 『옛 우물』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0, 2009  
 정재림, 「오정희 소설의 이미지 기억 연구」, 『비교한국학』 14호, 2006  
 조남현, 「소년의 시각과 그 회상」, 『소설문학』, 1987  
 최윤정, 「부재(不在)의 정치성(精緻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변주」, 『작가세계』 7, 1995.

<Abstract>

Re-Reading of *The Soul of Wind* by

Oh Jeong-Hee

- With a focus on motifs -

Kim, Mi-Young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reviewed *The Soul of Wind* by Oh Jeong-hee, being conceived and differentiated by an effort to interpret the meanings of its motif and husband from a new perspective.

The novel consists of a main motif, which is "running away from home," and two inserted motifs, which are *Heonhwaga* and *The Road*, an Italian movie. The motif of "running away from home" reveals the nature of the novel as a narrative to search for existence, while the inserted motifs of *Heonhwaga* and *The Road* are the "songs of reposing a soul" dedicated to Eun-su, the main character, and reveal the nature of the novel as a mourning narrative.

In the novel, Eun-su ran away from home in total 11 times. She ran away from home two times before getting married: one during her childhood and the other during her girlhood. The remaining nine times happened after she got married. She ran away from home for the first time in her life because of the original childhood experience of witnessing the disaster inflicted upon her family during the war. As a girl, she ran away from home again because of her birth secret. Even after she got married and gave a birth, she made more attempts at running away from home. Those attempts of hers were tragic acts for her to find her own existence and roots. It is, however, difficult to conclude that she succeeded in exploring her existence by running away from home. After she ran away from home for the last time, she confirmed her root but had her severance from her husband and child solidified. The inserted motif of *Heonhwaga* is a device to remind that the "red" image of the novel is associated with death once again. It becomes a song of reposing a soul for Eun-su's ritual death along with *The Road*.

The previous studies on the novel discussed Eun-su's husband, Ji Se-jung, as a character that did patriarchal and male-centric thinking and was in confrontational relations with her. He, however, reacted with compassion and sympathy every time she ran away from hom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consider him as a symbolic male-centric character. He was also a victim of her running away from home who c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tragic magnetic field of war.

\* Key Words : motif of "running away from home", inserted motif, *Heonhwaga* and *The Road*, original childhood experience, own existence and roots, song of reposing a soul, ritual death, compassion, war

\* 이 논문은 2016년 5월 8일에 투고되어 2016년 6월 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6월 7일 편집위원회를 통해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다.